

두경부 백반증환자에서 13-cis-Retinoic Acid의 치료효과

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태 경* · 이 형 석

목적 : 백반증은 전구암질환으로 이중 약 5%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한된 병변의 경우 수술적 제거가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나 광범위한 병변의 경우 수술이 어렵게된다. 근래 13-cis-Retinoic acid로 구강백반증을 치료하여 병변의 회복이 가능하였으며 두경부암의 치료후 이차암의 발생빈도를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. 저자들은 후두와 구강의 백반증환자에서 13-cis-Retinoic acid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 :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한 후두 및 구강백반증 17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13-cis-retinoic acid 1-2mg/kg를 3개월 동안 경구투여 하였다. 약물투여 전후 liver fuction test, CBC, triglyceride를 측정하였으며 치료 전과 치료종료 후 같은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. 병변의 임상적 호전여부는 사진과 내시경검사로 관찰하였으며 반응정도는 병변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완전관해, 병변의 크기가 50%이상

줄어든 경우 부분관해로 하였다.

결과 : 후두백반증이 7례, 구강이 10례 이었으며 남녀 비는 10 : 7이고 평균연령은 54세였다. 조직학적으로는 hyperplasia 및 hyperkeratosis가 11례, mild dysplasia가 4례, moderate dysplasia가 1례였으며 lichen planus가 1례 였다. 부작용으로는 전례에서 cheilitis가 있었으며 피부 건조감, 소양증 및 손가락, 발가락의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 증상이 있었고 그 외 triglyceride증가, 결막염, 안면의 홍조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. 임상적으로 완전관해는 없었으며 4례에서 부분관해가 있었으며 10례에서는 큰변화가 없었고 3례에서는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여 호전정도를 평가할 수 없었다.

결론 : 13-cis-Retinoic acid로 후두 및 구강백반증을 치료하여 약 30%의 환자에서 부분관해가 있었다.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